

저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02학번 최우윤입니다. 총여학생회 건설에 앞서 정책과 공약 등의 자문을 받고, 도움을 청하고자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총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99년도에 총여가 선 이래 수 년동안 총여가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99년도에도 불미의 사고가 있어 불명예스럽게 총여가 와해된 것으로 압니다. 저는 02학번이라서 사실 저희 학교 내에서 총여의 실체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 학우들에게서 총여나, 여학우의 인권과 같은 의식은 후퇴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학교 분위기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99년도 이후에 여학생휴게실이 운영중단되었고, 수년간 학내 혹은 학교 인근에서 성폭행, 성희롱 등의 문제가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나 대책마련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마 여학생휴게실을 다시 운영한다면 '왜 남학우도 있는데 꼭 여학생휴게실을 운영해야 하나? 우리는 뭐냐?'는 반격에 처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수 년전에 설치했던 소형 생리대자판기도 고장난 채로 방치된 지 오래고, 총여실은 수년째 인근 학생회실의 창고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현드린대로, 이미 마초화되어 갑니다.

이에 학내 여학우들의 흡연권 문제도 심각합니다. 물론 흡연은 좋지 않기에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의 기호로도 볼 수 있는 바 저 역시 비흡연자이지만 여학우들의 흡연권이 많이 유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식이 부족해서 흡연구역에서의 여학우들의 흡연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흡연이 많이 이루어져 비흡연자들의 강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주변에 여러 위험요소들이 있어 말씀드린대로 성범죄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처지입니다. 총여비역회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지만 일회적이고 저역시 항시 늦은 시간에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타 단위(총학, 단대학생회 등)의 배려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사구를 치는 것은 보기 안 좋고 포켓볼을 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99년도에 총여가 안좋게 무산되었고 그 이후로 이대로 지속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참으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짜 든 선거관(몇개의 단위에 대해 함께 고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에서 제가 총여학생회장으로 나설 참인데, 실체를 보지도 못했고 상황도 이러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여대협에 정책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선거관이 중간고사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서 정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 후보자 등록기간 : 11월 10일(월)~12일(수)
- 추가 등록기간 : 11월 13일(목)~14일(금)
- 선거운동기간 : 11월 16일(일)~11월 24일(월)
- 선거일 : 11월 25일(화)~11월 26일(수)

저희 학교 선거 기간이 이렇게 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안에 정책, 공약을 정리하고 인선논의에 관한 사안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에 총여가 서지 않으면 아마도 향후 2~3년간을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함께 준비해주시는 분들도 자신의 단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웬만한 선배들도 총여의 실체를 보신 분이 적고, 게다가 총여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당혹스럽습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하고 그러나 올해가 아니면 안된다는,, 열정과 신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비어있었으므로 총여의 예산배정문제도 앞으로 닥칠 난관이지만, 무엇보다 총여건설을 현실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학교 총여의 정책과 공약, 정체성, 경향 등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들어가면 '왜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냐'는 공격부터 받을 텐데 아직 무장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한 말씀이라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